



좋은 친구

FRIENDS

2025. 7.
Vol.019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표지 이야기



1. 매년 인도 람강가지역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렌즈봉사단 람강가팀의 활동 장면입니다.



2. 프렌즈봉사단 람강가팀이 현지 청년들과 매일 만드는 도넛은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과 아이들에게 맛과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9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정보	제19호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이사장 주경훈(오륜교회 담임목사)
발행인	주경훈	이사 고일국(오륜교회 목사)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박명례((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전화	02-483-5007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E-MAIL	friends@hifriends.or.kr	옥유수(하나웰니스(주) 대표이사)
Facebook	hifriends153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Instagram	friends.ngo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2025년 1월 1일~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KIM JANGWOOK 강경희 강영섭 강주안 강채민 권영성 기현아 김교현 김미금 김미영 김민수 김민정 김보미 김성숙 김영대 김은미 김재복 김지명 김지애 김지연 김혁수 김현지 김해자 노태은 문명륜 문은정 민한솔 박경찬 박병기 박성연 박세혁 박재신 박한나 박홍래 반미정 방예림 배성호 배정숙 변주옥 서정숙 서진숙 성주안 송성훈 송영희 심민정 안세현 안정숙 안준혁 양시온 엄진희 오명선 원다연 유명우 윤금선 윤금순 윤보람 윤승환 윤향숙 은영희 이경미 이동형 이상열 이상현 이수정 이영수 이영애 이은주 이인경 이정숙 이정윤 이정희 이진아 이진옥 이한나 이현경 이혜강 임광수 임민정 임시준 장수연 전소은 전해란 정명란 정보미 정선영 정윤희 정혜경 정혜선 조가희 조선우 조윤수 조 인 최경훈 최동준 최명술 최석원 최영환 최옥희 최우림 최 율 최정화 탁제원 한단아 한영빈 허은선 현연심 황선영 황연숙 황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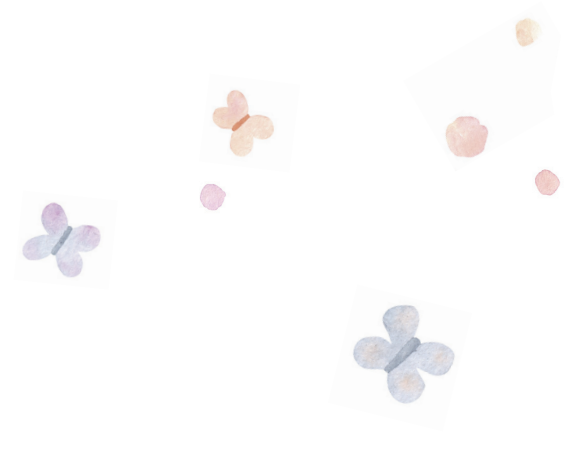
단체 (주)아리마대 (주)에이엔제이솔루션 법무법인서린 생각제작소바이루시아그룹(주) 에반처치 종근당 주식회사전국피알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04 인사말
윤승철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케냐 키베라에서 보낸 10년의 기록
- 09 해외사업 '둘'
카자흐스탄 KT&G장학재단
코리안 센터를 시작하며
- 13 해외사업 '셋'
이 땅에 사랑을 심습니다.
- 프렌즈봉사단 람강가팀
- 19 프렌즈 핸드온
알록달록 사랑을 색칠해요
- 핸드온의 상반기 활동 모음
- 22 프렌즈 News
2025 프렌즈 상반기



프렌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봄은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젊음과 태양의 계절인
여름이 좋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울여름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미리 기원하게 됩니다.

사계절의 규칙적인 만남과 헤어짐과는 달리,
우리는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국가와 국민이 일련의 진통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면서도 극심한 대립의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신발 끈을 묶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체했던 만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과 기후 이변을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받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인 사회적 안전장치는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장벽이 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NGO'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프렌즈도 예측 불가한 미래를
준비하는 NGO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국제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며
접근하다 보면, 분명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 긴급구호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울여름 모든 프렌즈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한 곳도
재난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거나 기후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윤 승 철



케냐 키베라에서 보낸 10년의 기록



지난 프렌즈 소식지(Vol.12)에서
'솔리카우 프로젝트'로 소개했던
케냐 사업장 기억하시나요?
케냐 키베라 슬럼가 한가운데에 있는
세이버킹학교에서 10년째 다양한
창의적 교육과 돌봄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숙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키베라의 오염된 하천



2015년, 케냐 키베라에 첫발을 내딛다

2015년, 100일 된 첫아들을 품에 안고 케냐 키베라의 좁은
골목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의도만한 땅에 80만에서 15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이곳,
정확한 인구조차 알 수 없는 곳에서 저의 케냐에서의 활동
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생존을 위해 매일을 버티는 이들의 삶에는 가난만큼
이나 각종 위험이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키
베라는 단순히 가난한 곳이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기도 했
고, 이곳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혹은 범죄
집단에 의해 늘 이용당하곤 했습니다.

낯설었던 이곳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배 활동가도 현
지에 익숙해진 후 긴장이 무너져, 방문자와 함께 있다가
갖고 있던 카메라와 소지품을 몽땅 빼앗겼던 아찔한 경험
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초반에는 늘 현지 학
교 이사장님과 경찰과 함께 이동했고, 아이들을 만날 때조
차 애써 경계심을 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힘겨웠지만, 그만큼 이곳의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매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라밀크로 불빛을 비추는 아이들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

‘세이버킹 학교’에서의 만남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세이버킹 학교’에서는 58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한 끼가 유일한 식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는 책임진다”라는 다짐 아래 급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장학금과 후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는 창의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레파스를 잡아본 적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환하게 웃습니다.

특히 프렌즈의 지원으로 진행한 ‘솔라카우 프로젝트(태양광 발전시스템)’는 정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밤에도 밝은 빛 아래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은 솔라밀크(휴대용 배터리)에 내장된 라디오와 SD

카드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적극성과 자존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많았던 만큼, 저에게는 많은 숙제와 작업량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어떤 물품이 오면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배분한 사진을 전달하면 마무리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도 추가적인 교육 활동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특성상 학기 초에 솔라밀크를 아이들에게 지급했다가 학기 말에 회수하고, 학년별/기간별로 평균 학업 성취도 및 출석도를 확인하면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야 했으며, 방학 동안에는 SD카드에 새 학기에 맞는 교육 자료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또한, 학기 말에 아이들에게 배분된 SD카드가 많이 분실되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우리’, ‘공유’, ‘미래’에 관한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 3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솔라카우 프로젝트와 함께한 친구들이 2023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8학년 시험에서 매우 향상된 성적을 보이며, 한 걸음 나아가 최고 성적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이버킹 학교가 키베라에서 1등 학교가 되었고, 키베라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2023년 케냐의 고득점자가 428/500이었는데, 세이버킹 학교에서 388/500라는 고득점자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300점 이상 나온 학생이 6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점수도 244점에서 257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키베라는 세계 3대 빈민촌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극심한 슬럼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힘써주신 프렌즈 후원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계속되는 활동

현장에서는 이렇듯 꾸준한 변화도 있지만, 여전히 위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방학 중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신고

했다가 오히려 그 범인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시골로 피신해야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 안타깝고 아픈 일을 경험한 후, 방과 후와 방학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교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가 슬럼 확산을 막으려 중앙에 도로를 내면서, 예전보다 학교 부지는 줄었지만, 접근성은 더 좋아지고 길도 안전해졌습니다. 결연 아동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이로비 도심에서 비싼 공간을 빌리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이사장님이 “잠깐이라도 아이들이 슬럼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오는 일 자체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나이로비박물관과 파충류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넣거나, 밖에서 수련회를 열어 좀 더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일부 교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 큰 움직임이 있을 때 나무 바닥에 영향이 가기도 하고, 책걸상도 낡고 불편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키베라 곳곳에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연 아동들과 방문한 박물관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지난 10년간의 지나온 모든 이야기는 책이나 뉴스로만 접하던 '아프리카 빈민가'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 이었고, 매일 새로 피어나는 소망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들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매주 같은 사업장, 같은 골목, 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태롭고 낯설기만 했던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며 위로하였고, 저 또한 이 아이들로부터 숨결 같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면서, 때로는 아이가 찾아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라는 질문을 하며 속상해할 때는 함께 울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지내고 배우면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음에 기쁨을 느끼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전한 필요와 간절한 소망

이제 아이들은 솔라믹크로 밤에도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키베라 최고의 성적을 내는 아이도 생겨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깨끗한 물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 긴장하지 않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현장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노랫소리, 교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키베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이들, 꿈을 품고 미래를 그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사랑, 그리고 안전과 교육이 고루 채워지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키베라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빛이 계속 빛나길,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 KT&G장학재단 코리안 센터를 시작하며



올해 여름이 우리가 만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극한 폭염의 비중이 8.6배로 증가했다고 하니 온 인류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지구 위에서 나름의 방법대로 폭염을 이겨내느라 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만년설로 유명한 카자흐스탄의 '천산산맥'입니다. 아시아의 스위스 또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천산산맥은 세계 7대 산맥 중 하나로, 동서로 약 2천 킬로미터 이상 뻗어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산맥입니다. 알마티를 향해 가다 보면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새하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산입니다. 천산이 시내 중심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도심에 있어도 어디서든 만년설을 볼 수 있기에 신기합니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작은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차른 캐년(협곡)',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빙하와 만년설이 어우러진 에머랄드빛의 '쿨사이호수', '카인디 호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프렌즈와 카자흐스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프렌즈는 천산이며 차른이며 콜사이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025년부터 KT&G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알마티경영대학교(Almaty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알마유')와 협업하여 "KT&G장학재단 코리안센터(Korean Center, 이하 '센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KT&G장학재단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 현지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글로벌 장학생 1,500여 명을 키워냈습니다. 알마유는 1988년 설립된 카자흐스탄 최초의 경영대학으로서, 현재 전임교수 180여 명의 지도하에 5,2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2024년 알마티 소재 35개 대학교 중 9위에 랭크된(World Universities search engine 제공) 학교로 MBA 및 DBA 학생 1,000여 명과 졸업생 6,000여 명을 배출한 우수 대학교입니다. 외국어 중점 대학은 아니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KT&G장학재단과 프렌즈, 프렌즈와 알마유는 각각 협약을 맺고 센터를 개관하기 위한 교육 공간 조성 및 강사 섭외, 학생 모집 등 제반 준비 과정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3월 14일, 알마유 강당에서 코리안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해 KT&G 심영아 사회공헌실장, 굴나라 쿠렌케예바 알마유 총장, 아실베크 코자크메토프 알마유 설립자, 조지칸 알마티 코리안 내셔널 센터 회장, 프렌즈 박명례 이사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센터 강사진과 수강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개관식의 사전 행사는 내빈 간의 교류로 시작되어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등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개관식이 시작되고 내빈 소개와 함께 굴나라 쿠렌케예바 총장, 심영아 사회공헌실장, 프렌즈 박명례 이사 등 주요 인사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KT&G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후 KAIST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서 활약 중인 다니야르 장학생의 축하인사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센터의 강의실로 자리를 옮겨 리본 커팅식을 하고 한국어 교육을 맡은 강사진 소개와 함께 수업 참관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상호 문화의 이해"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오상호 교수는 카자흐스탄 문화학과 문화 인류학, 한국어 교육 등 유관 분야를 두루 전공한 우수 강사로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객원교수로 재직중입니다.

개관식 이후 센터는 한국어 기초반과 심화반 각 2개 반, 총 4개 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96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율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 체험, 한식 만들기 등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을 개최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어 교수법 개발 및 한국어 보급 방안 등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한국과 카자

흐스탄 간 언어 및 문화 교류 확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고려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1930년대 구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연해주에서 수천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이동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 후손 십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주의 슬픈 역사 가운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화물 객차에 실려서 한 달 여 가량의 시간을 달려 버려지듯 살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정착과정에서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에 많이 죽기도 했고,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며 토굴 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인들은 갖은 역경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극복해 내었고, 카라탈강에서 수로를 내 황무지를 옥토로 일궈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은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했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 중 6위(2025년 포브스 발표 인용)에 해당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K-뷰티 등 우리조차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벽찬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채택되거나 세계 주요 대학의 대입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문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한국어는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만든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목적과 원리가 책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문자라고 합니다. 세계 언어학계 및 전문가들은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 정확성 때문에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하였고, AI 시대에

최적화된, 인류가 꿈꾸는 최고의 언어가 한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렌즈가 카자흐스탄에서 알마유와 협력하여 KT&G장학재단 코리안 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언어와 문화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 NGO로서의 프렌즈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사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길 바라며,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KT&G장학재단과 알마유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을 심습니다

프렌즈봉사단 람강가팀



프렌즈는 2007년부터 매년 해외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본인의 휴가와 명절 연휴까지 기쁜 마음으로 반납하며,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오지 마을로 향합니다.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도 람강가팀은 의료활동을 비롯해 어린이 교육, 학교 활동, 제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봉사를 재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오랫동안 팀에서 활동해 온 박성철 팀장의 눈으로 본 람강가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람강가를 아시나요?

람강가는 인도 동부, 서벵갈주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갠지즈강이 벵갈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저지대의 특성상, 해마다 홍수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며 많은 주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고 있습니다. 서벵갈주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혼재된 지역으로, 언어는 벵갈어를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은 주로 어업, 농업, 벽돌공장 노동 등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고 의료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은 편입니다.

람강가에 첫 발을 내딛다

처음 람강가에 있는 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건축 계획은 2층 규모였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1층 골조 공사와 2층 바닥만 겨우 마친 상태였고, 전기도, 상하수도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환자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밤늦게까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어린이 교육팀은 2층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노래와 미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미용 봉사팀은 그곳을 찾아온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바닥에 돛자리 하나 깔고 잠을 청해야 했는데, 모기와 더위에 시달렸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골조 위에서 진행된 그 첫 활동은 이후 람강가 전역으로 팀의 활동이 확장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사랑을 들고

봉사 첫날이 되면, 팀을 나눠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며 선물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손에는 선물을 들고 인사를 나누며, 이곳에 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그들과 삶을 나눕니다.

“시집와서 일만 하는 삶이 너무 지칩니다.”, “남편은 일을 안 하고, 매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이는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여러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봉사단원들은 그저 같이 울고, 안아드리며 위로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비록 언어는 달라도 그분들 눈에 고이는 눈물이 저희의 위로가 마음에 닿았음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하기 전,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아닌,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는 위로의 손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매번 되새기게 됩니다.

의술과 진심이 만나 기적으로

전문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은 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통증클리닉,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운영되는 센터 앞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백 명의 현지 주민들이 노숙까지 하며 진료를 기다립니다. 인도에도 병원은 있지만, 시골 마을일수록 의료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고 많은 이들이 가난하여 병원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간단한 질환조차 치료받지 못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며, 때로는 매우 안타까운 사망 사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는 날까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줄을 서 계신 분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팀은 최선을 다해 하루 평균 1,000여 명을 진료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의료팀을 찾아온 어느 환자는 3년 전 친오빠가 물에 빠져 죽은 후, 그 충



격으로 실어증과 난청을 겪게 되었는데, 의료 팀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치료에 말문이 트이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제약회사에서 기증한 의약품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좋은 약을 받았다고 감사해하는 그들의 미소는, 긴 여정의 수고를 잊게 만드는 큰 보람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제약회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글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10년의 기다림, 마이피를 세우다

2014년 봉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금요일이면 떠나야 하는 일정이었기에, 목요일 오후는 거의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부부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목엔 커다란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무게 때문에 목이 기울고 근육 발달까지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림프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림프관 기형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간 외과 의사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해, 의료팀은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구는 단순 절개와 농

양 배농에 적합한 수준이었고, 전신마취는 커녕 마취 기계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소마취제를 조금씩 주사하며, 팀원들이 아이를 붙잡은 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멸균은 유지되지 않았으며, 결국 수술 중에 경정맥이 찢어지며 엄청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지혈도, 봉합도 가능한 기구가 없는 가운데, 맥박이 잡히지 않고 아이는 급속히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팀원이 침묵 속에서 망연자실한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굵직 굵직한 기구들로 혈관을 봉합하였는데 기적으로 출혈이 멈췄고, 울음을 멈췄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이피’였습니다. 그 후로도 봉사단이 방문할 때마다 마이피 가족은 우리를 반갑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봉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봉사 장소를 해외하려고 문의하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한 가정의 봉사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한 후,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마이피였습니다. 10년 전 어려운 수술로 살려내었던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을 품고, 지역을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아이, 사랑으로 귀가 들리다

20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료봉사팀을 찾아온 한 부부가 어린 딸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걱정스레 말했고, 함께 간 이비인후과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한 청각 장애 상태였고, 인공와우 이식술이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한국에서도 수천만 원이 드는 고가의 수술이기에, 인도 현지 가정으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귀국한 후, 이 사연이 여러 곳에 전해졌고, 많은 분이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마침내 그 아이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면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생명에 닿은 사랑의 손길은 단지 청각의 회복을 넘어, 사랑이 들리기 시작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지침 위에 심기는 섬김

봉사단의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통증클리닉, 치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는 곳은 통증클리닉입니다. 이 지역은 기계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마치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 농촌처럼 사람이 직접 손과 몸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르다 보니, 많은 분이 허리, 어깨,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증클리닉 앞은 늘 긴 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료 시간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모든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계기로, 수지침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떠나기 전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현지에서는 수지침을 놓으면서 20분가량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통역자나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 짧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그 어느 활동보다도 가장 깊은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넛으로 전한 사랑

의료봉사가 이뤄지는 센터 앞에는 밤새 노숙하며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 맨바닥에 얇은 천 하나 깔고 잠든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



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을 위해 아침 일찍 도넛을 만들어서 나누어드리면 어떨지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도넛 나눔이 시작되어 매년 이뤄졌습니다.

작년부터는 진료를 받으러 오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넛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남자 봉사단원과 현지 청년들이 힘을 합쳐 매일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루 1,000개 이상의 도넛을 만들어 어린이 봉사 현장과 진료 대기자들에게 나눠드리며, 따끈따끈한 도넛의 온도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함께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흙밭에서 피어나는 우정 : 보노삼노골섬 친선 축구대회

봉사단이 활동하는 곳 중 하나인 보노삼노골섬은 비교적 큰 섬이라 몇 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봉사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매년 봉사단이 섬을 방문하면 학교와 봉사단 간의 친선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이 축구대회가 더 재미난 점은, 봉사단이 방문하는 시기는 대부분 우기라서 운동장이 늘 진흙탕이라는 점입니다.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선수들의 발도 계속 미끄러지지만, 모두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경기에 임합니다. 진흙밭 위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늘 혼전이지만, 결국은 홈그라운드 의 이점을 가진 인도 팀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후에는 작은 시상식도 이어집니다. 이기면 부상으로 닦 여러 마리와 축구용품을 선물합니다. 이 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봉사단과 마을, 학교 사이에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는 시간입니다.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땀으로 이어지는 교제는 해마다 이 섬을 더 사랑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학교에서 자라가는 꿈

처음 람강가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센터를 찾아온 아이들은 몇십 명 남짓이었지만, 그 후, 해마다 방문을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센터의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수백 명의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만난 아이 중에는 꾸준히 봉사단을 찾아와 그 지역의 인재이자 일꾼으로 성장하기도 했

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이들과 나눈 음악, 미술, 체육, 게임 등 함께 한 활동들이 하나씩 쌓여 아이들의 꿈이 되고, 그 지역을 함께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지역 학교에는 한 곳에만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지역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도시로 흩어져서 힘든 일,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스트 제도의 그림자는 여전히 인도 청년들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인도 학교는 예체능 교육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노래, 춤, 그림, 이야기 등 창의적이고 따뜻한 교육에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에서는 매년 현지 학교와 협의해서 정식 수업 시간에 학교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음악,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꿈을 품고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단원들도 더 많은 아이가 언젠가 이 땅의 오랜 구습과 낡은 시스템, 열악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선하게 세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 믿고 응원하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돌잔치 대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다

람강가는 비가 자주 오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집 앞 땅을 파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 식사, 빨래, 씻는 데 사용합니다. 드물게 우물이 있지만 깊지 않아서 쉽게 마르거나 오염이 되기 쉽고, 그렇게 늘 오염된 물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피부질환, 장염,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봉사단원 중 한 분이 활동을 다녀온 후, 본인의 아들 돌잔치를 준비하던 중 '아들 돌잔치 비용으로 그 땅을 위해 사랑을 흘려보내면 어떨까?'라는 뜻을 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돌잔치를 취소하고, 그 비용 전액을 람강가 지역의 우물을 파는 데에 후원하였습니다.

기존 우물들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는 200m 깊이의 관정 우물을 뚫었습니다. 그 우물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맑고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덕분에 많은 가정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우물은 물 공급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고, 람강가 주민들에게 사랑을 마시게 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보노삼노골섬의 태양광 가로등

한편, 보노삼노골섬은 전력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아, 가정집 조차 전기가 부족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납니다. 가로등 하나 없어 해가 지고 나면 마을 전체가 캄캄한 암흑으로 변합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운 밤길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몇몇 봉사단원이 마음을 모아, 마을 주요 길목마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햇빛을 저장한 가로등은 저녁이 되면 조용히 불을 밝히며,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함께 밝혀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밤에도 길을 오가며 웃고, 노인들이 캄캄한 집 앞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모습은 봉사단 모두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고 연약한 만남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낮은 언

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과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가장 열악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 지역의 기둥이 되고 건물을 세우고, 아픈 분들이 회복되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졌으며, 한 사람의 눈물과 결단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람강가에 가고자 합니다. 현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완벽한 해답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다시 그 땅을 밟으려 합니다.

사랑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땅은 사랑으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동시에 저희의 마음속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가는 사랑,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올해도 저희는 람강가로 향합니다.



· 핸드온의 상반기 활동 모음 ·

알록달록 사랑을 색칠해요

색으로 표현하는 사랑, 컬러링 핸드온 봉사활동

핸즈온 활동 중 기업사회공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컬러링 활동! 바느질이 필요한 펠트 필통보다, 색칠해서 완성하는 컬러링 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많은 분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 2차 활동을 통해 컬러링 에코백 총 600개, 컬러링 티셔츠 100개를 만들어 주셨고, 5월에는 신한저축은행 임직원들이 120개의 컬러링 에코백과 필통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프렌즈 사무실에 도착한 핸드온 완성품들을 확인하면서, 가방과 티셔츠에 알록달록 정성을 다해 가득 채워진 색깔만큼이나 아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보여서 참 따뜻했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봉사자분들과 직접 만나 활동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5월 21일, 삼성SDS 40여 명의 임직원분들과 함께 컬러링 티셔츠&에코백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프렌즈 핸드온에 대한 소개를 20분가량 나눈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이면 쉽게 끝날 것 같라며, 매우 기뻐?했지만, 교육을 듣고 나니 자신이 만든 티셔츠와 가방이 꼭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사뭇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 활동했던 봉사자분들의 멋진 완성품 이미지를 본 후에는 다들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라며 걱정 섞인 웃음을 지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는 봉사자분께 선한 부담감을 드리는 데에 성공했다는 뿌듯함으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했지만, 봉사자들은 이내 숨겨왔던 예술혼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어울리는 색

조합을 찾아보거나, 심지어는 캐릭터들의 옷을 모두 다르게 입혀주겠다며 휴대폰으로 다양한 티셔츠를 검색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색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중년남성분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고, 티셔츠 안에 태극기를 그려 넣는 애국심을 녹여낸 분, 독특한 세계관을 만화처럼 투영해서 색칠한 분, 또 어떤 분은 "제가 색칠을 잘못했는데, 이걸 받을 아이에게 미안해지네요~"라며 걱정하시는 분까지, 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다른 분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끝까지 남아, 티셔츠와 가방의 빈 부분을 빠짐없이 채워 예쁘게 완성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자신이 완성한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봉사자들에게도 큰 보람이 된 활동이었음을 보며, 이분들의 열정과 정성이 현장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면서, 모두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업 담당자분도 그 어느 때보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활동이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참여해 보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다는 피드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참여해주신 삼성SDS 임직원분들에게 더욱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프렌즈 핸드온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일상에서 쉽고도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싣고, 전 세계로!

개인과 기업 등 핸드온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많은 봉사자분들의 손길로 탄생한 완성품들은 프렌즈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을 비롯해 이런 물품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해외 곳으로 떠나는 봉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 7~8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페루, 이집트, 도미니카, 캄보디아, 튀르키예, 인도 이렇게 8개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전달된 완성품은 때로는 의료 봉사 현장에서 오랜 진료 대기 시간에 즐거움을 주는 좋은 놀이 친구가 되어 주고, 낯선 외국인에게 마음을 열게 해줄 소중한 매개체가 되며, 훌륭한 학습 보조 도구의 역할을 해준답니다! 무엇보다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직접 선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감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몽클함이 느껴집니다. 봉사자분들이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만들고, 희망을 가득 채워 색칠해주신 핸드온 선물이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담당자가 뽑은 베스트 작품들

핸드온 컬러링의 매력은 같은 밑그림인데도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지면 매우 다양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최근 도착한 컬러링 완성품 중에 멋진 작품들을 뽑아, 봉사자분 대신 저희가 자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바쁜 일상에 조금이라도 나눔을 위한 시간을 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프렌즈 핸드온과 함께 잠자고 있던 나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바느질을 하며 집중하는 힐링 시간을 보내거나, 컬러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보는 즐거움, 그리고 해외 아동에게 특별한 선물과 함께 중장기적인 변화를 선물하는 보람까지! 핸드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다채로운 행복의 색깔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025 프렌즈 상반기 News



2025 KOICA WFK NGO 봉사단 2기 파견

2024년 6월 프렌즈의 첫 번째 KOICA WFK NGO 봉사단 단원으로 선발된 김억대, 최은서 단원이 라오스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2기 NGO 봉사단원으로는 진다혜 단원이 선발되어 지난 2월 라오스 프안밋 학교에 도착하여 1기 단원 중에 활동을 연장한 최은서 단원과 만나 현지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라오스 아이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단원이었던 만큼,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건강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전 개소식

프렌즈 산하기관인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개소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곳은 길동역 부근 신축 건물로, 기존 공간보다 면적은 조금 작아졌지만, 이전보다 아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이전 개소식이 진행되었고,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프렌즈 임직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멋지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이전을 위해 힘써주신 강동구청과 개소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더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퇴임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해온 이문용 센터장이 올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2025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퇴직자를 대상으로 감사패 증정식을 진행했는데,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격려사와 함께 퇴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이 아직 마음과 열정은 청년 못지않기에, 현장에서의 활동이 마지막 임을 아쉬워하면서도 그동안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1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센터 아동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이문용 센터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행보를 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미션 현장 토크'

프렌즈의 협력사업장인 세네갈 칠레부 바카르에서 잠시 귀국한 권주로, 김이빛 활동가와 함께 '미션 현장 토크'라는 제목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6월 26일, 오륜비전센터 6층 토비아스 카페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네갈 아동결연 후원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심자 4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네갈을 알아가는 퀴즈를 시작으로, 영상, 사진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들을 감동적으로 나누었고,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들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자니아 알비노 아이들을 위한 세비아학교 사랑나눔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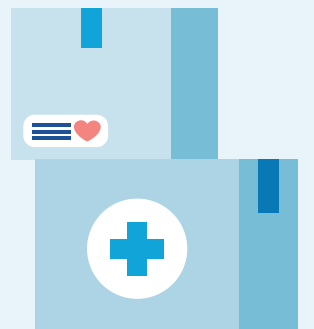
지난 6월 13일, 세비아학교에서 탄자니아의 알비노(백색증) 친구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약한 피부 때문에 햇빛조차 마음 놓고 누릴 수 없는 또래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직접 판매 제품을 만들고, 학부모들도 정성껏 물품을 준비해 힘을 보탰습니다. 세비아학교 아이들은 학교 주변 어르신분들께 알비노 친구들을 꼭 도와달라고 설명하며 바자회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덕분에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1,700,500원의 수익금을 모아 프렌즈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알비노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및 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세비아학교를 운영하는 생각제작소바이루시아그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국내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협력하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 기부

프렌즈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사랑의 클리닉으로, 해외는 프렌즈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많은 약품은 뜻을 같이하는 여러 제약회사의 기부약품을 통해 준비되어 현장에서 값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렌즈에 기부해주신 의약품들은 전문의료진들의 관리하에 꼭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약품을 후원한 제약회사와 관련 감독 기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후원으로 협력해 주시는 제약회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곳

HK이노엔, JW신약, SK케미칼,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동화제약, 마더스팜, 맥널티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삼일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유니메드, 일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종근당, (주)이노트로닉, (주)한독, 중외제약, 케이플러스팜, 코오롱제약, 태준제약, 팜젠사이언스, 한국산텐, 한림제약, 한미약품, 호월송암재단, 한인제약, 휴온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후원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프렌즈에 꼭 알려주세요!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www.hifriends.or.kr

